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환경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7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ESG는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7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 01 ESG Keyword [에너지 전환 · 노동정책 · 상법 개정 / 자진 상장폐지]
- 02 ESG Trend [생물 다양성 공시 -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 03 ESG Policy [신정부 ESG 정책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 2025년 7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 04 ESG Event [한국ESG연구소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에너지 전환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각종 인허가·규제권 전 막강 부처로 (조선일보, '25.06.17)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06/17/M6R4RMIDZBCAFOQ37ZKYFU4AQA/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환경부 기후탄소 기능을 통합해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환경단체와 관가 일각에선 환경부 권한 축소와 산림청 이관 가능성 등 권한 재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능 집중 해소를 위한 과감한 권한 분산 원칙을 강조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뚫리나?...산업부, 에너지 전환에 속도 (뉴스트리, '25.06.20)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6200005>

국내 송전망 등 전력계통 부족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8.6GW 중 7.1GW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30GW에서 2038년 121.9GW로 확대 목표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2030년까지 연 7GW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¹ 착공 후 2040년까지 남해·동해로 확장해 U자형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전이 건설하는 서해안 HVDC(총 620km, 사업비 7.9조원, 수송능력 8GW) 역시 당초 2036년 완공에서 2031년 1단계 조기 준공으로 조정됐다.

'EPC 강자' 삼성E&A, 에너지 전환 이끈다 (서울경제, '25.06.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6A4HOYF>

삼성E&A가 글로벌 테크포럼을 열고 아람코·엑손모빌·페트로나스 등 140여 글로벌 기업과 에너지 전환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카본클린의 탄소포집 신기술과 넬의 그린수소 솔루션이 소개되며 삼성E&A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역량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이 주목받았다. 삼성E&A는 기존 EPC 사업을 디지털·AI로 고도화하는 전략과 친환경 신사업을 선제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 중이며, SAF²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에너지테크 기업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¹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망.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 송전, 수전지역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해 공급함

²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기존 항공유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ESG Keyword

한눈에 보는 노란봉투법 3대 실무상 쟁점 (한국경제, '25.06.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80891i>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 의무 및 교섭단위 설정, 대체근로 금지 범위 확대 등 노사관계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노동쟁의 개념도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단체협약 규정 정비와 쟁의 대응계획 마련이 기업에 중요해지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약구조 조정, 교섭단위 관리, 채증 대응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추진 (ESG경제, '25.06.1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9>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매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사의 기업 활동 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경영책임자는 매년 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 마련, 교육·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및 미이행에 따른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액급? 정액수당?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 (한국경제, '25.06.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44822i>

현행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 없이 수당을 포함한 '정액급제'와, 기본임금을 산정하되 수당을 고정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두 가지로 나뉜다. 민주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 두 유형의 포괄임금 계약을 모두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정OT³ 제도까지 금지될 경우, 많은 사무직 사업장에 광범위한 제도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도의 유형을 점검하고 입법 추이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근 후 카톡 금지" 추진하는 정부...해외 사례 살펴보니 (한국경제, '25.06.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09789i>

정부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⁴' 입법 추진을 예고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는 위반 시 최대 9만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며, 이탈리아·포르투갈 등 20여 개국도 유사 입법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경쟁 속 시차 대응과 성과 기반 문화와 충돌하며 업무 유연성과 자발적 성과 확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도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느 수준의 강제력으로 입법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³ 사전 합의로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 외에 고정 지급하는 제도

⁴ 직장 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무 연락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

ESG Keyword

늘어나는 자진상폐..."공개매수 큰 장 선다" (한국경제, '25.06.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933561>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규제 예고 속에 신성통상·텔코웨어·한솔PNS 등 알짜 상장사들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 신성통상은 83.87%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측이 추가 매수로 상폐 요건을 충족하려 하고, 텔코웨어도 자사주 44.1%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개매수를 시도 중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고 저평가된 일성아이에스, 조광피혁, 부국증권, 모아텍 등도 잠재적 상폐 후보로 거론된다. IB업계는 하반기 공개매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유가증권시장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동의)로 상장폐지 결의
- 상장공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심의
 - ①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 실시
 - ② 상장폐지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95% 이상 보유
 - ③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최대주주 등 제외)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 부여에 대한 약속
 - ④ 기타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

*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상법 개정안 통과..."中企 부담" vs "투명성 강화, 영향 제한적" (조선비즈, '25.07.05)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5/07/05/XAYNHWW4VBHZZPZTQGYORHDI5Q/>

7월 3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경영 실패 시 주주 소송 부담이 커지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협력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학계는 이번 개정안이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업계는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 개정 상법(2025.07.03.)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회사 → 회사 및 주주 (공포 후 즉시 시행)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비율 확대**(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독립이사 의무선임비율 이사 총수의 1/4 → 1/3 (공포 후 1년 유예, 구성 비율은 시행 후 1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 룰 확대 적용**(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공포 후 1년 유예)
- **전자주주총회 도입**(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신설):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자산규모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병행 개최 의무화 (2027.01.01 시행)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상장사협의회(2025.07.03)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예상했던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2025.07.03,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0·반대 29·기권 23], 조선비즈, 2025.07.07. ['자사주 소각' 논의 본격화... 與·국정위 논의 '속도'])

ESG Trend

생물 다양성 공시 -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요약문]

- 기후변화를 넘어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등 자연자본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연 리스크는 공급망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존의 기후 공시 프레임워크 TCFD를 확장한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으로 부상하며, 기업의 자연자본 의존도, 영향,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설계됨.
- TNFD 공시 내용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Pillar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부문에서 기업 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도 및 정책, 전략 부문에서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위험 및 기회와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에서는 생물다양성 리스크 모니터링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에서는 토양오염, 생태계 종 분포도 등 생물다양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TNFD 공시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자연자본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TNFD에서 제시하는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
- 2021년 출범한 TNFD는 UNDP, UNEP FI, WWF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였으며, 글로벌 446개 기업이 TNFD 참여를 선언하였고, 이 중 금융기관이 약 116개사로 TNFD 공시 이행에 있어 가장 활발함.
- 국내 기업 중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등 약 5개 기업이 TNFD 협의체에 가입함.
- 금융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자연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생물다양성 연계 채권 발행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조·소재 산업은 공급망 내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리스크 진단 및 지속가능한 조달 강화, 소비자·패션 업계는 공급망 생태계 훼손 비용을 수치화 하거나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자연 데이터 확보 및 공급망 전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핵심임.
- 국내 기업의 TNFD 공시 대응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이며, 특히 TNFD에서 권고하는 글로벌 핵심 자연자본 지표를 활용해 자연자본 관련 정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극소수임.
- 한편, TNFD는 ESG 공시 기준(TCFD, CDP, IFRS 등)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투자 유치, 평판 개선, 지속가능성 마케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데이터 정량화의 어려움, 내부 인식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은 극복해야 하는 자연자본 공시의 주요 도전 과제임.

ESG Trend

[본문]

I.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란?

- 2021년 6월 출범한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는 기후 외에도 생물다양성, 물, 토양 등 다양한 자연요소를 포함해 기업의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UNDP·UNEP FI·WWF 등 다수 글로벌 기관이 참여함.
-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동일한 프레임 구조(전략, 거버넌스 등)를 유지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리스크 기반' 접근 뿐 아니라, 자연 보호와 회복을 고려한 기회 요소도 반영됨.

표 1. 생물다양성 공시 주요 내용

주제	내용
생물다양성 영향 지역 식별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인근 사업장 개수, 면적 및 위치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토지·해수 사용 변화)	육지·담수·해수 생태계 변화 및 유형, 생태계 관계 변화, 매립지 면적, 천연상품 종류 및 양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착취, 외래종 침입)	착취된 야생종 수/종류, 멸종 위기 정도, 외래종 침입 경로 및 종 수, 침입한 지역 면적 및 대응
생물다양성 상태(생태계 범위 및 상태, 종)	생태계 유형, 면적, 생태계 거주 종(종별 개체 수, 멸종위기 종)
생태계 서비스	사업활동에 의해 영향 받는 생태계, 서비스 및 사업체가 의존하는 생태계 서비스, 사업 활동에 의해 생태계가 받는 긍정적 영향
대응	사이트 내·외 자연친화적 구역, 생태계 복원 사업, 복원된 서식지 위치 및 면적

II. 왜 지금 TNFD인가?

-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물 부족 등 자연 기반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업 원자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기후 변화 대응 중심의 ESG 흐름이 '자연 관련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TCFD(기후공시)에 이어 TNFD가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부상함.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기관은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후 → 자연 → 기업 가치 → 사람이라는 연결 구조가 ESG 핵심으로 자리잡는 중임.

III. 주요 재무 리스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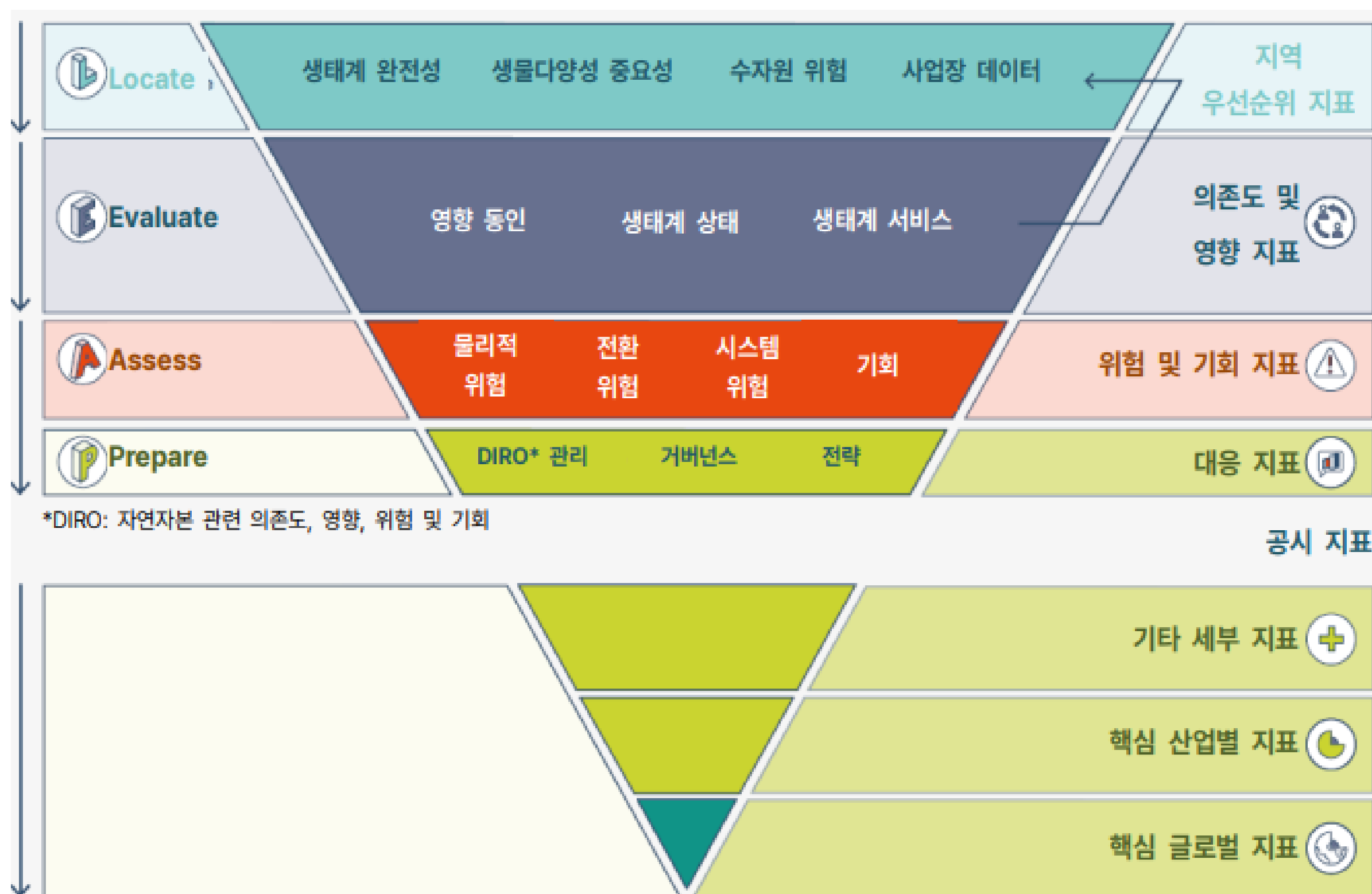
- 1) 브라질 육가공업체 JBS는 지속적인 불법 삼림 벌채 의혹 제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상장 반대, 협력사와 거래 중단 등 발생.
- 2) 미국의 다국적 제조 기업 3M은 과불화합물(PFAS) 방류로 인해 13조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함.
- 3) 대형 제약회사들은 투구게(Atlantic Horseshoe Crab) 혈액에 있는 엔도톡신 성분을 활용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생태계 손실로 인해 투구게 개체 수 감소 시 백신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함.

ESG Trend

VI. TNFD 프레임워크의 4단계 – LEAP

- TNFD의 LEAP 접근법은 기업이 자연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로서 TNFD 권고안을 이행하는 접근 방식임.
- L(Locate): 자연과 상호작용이 있는 사업 영역과 위치 식별. 가치사슬 중 '영향 받는 지역'을 파악(예: 농업 생산지, 물 사용 공장 등)
- E(Evaluate): 해당 활동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거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 물, 생물다양성, 토양, 기후 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
- A(Assess): 식별된 의존성과 영향이 재무·사업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평가, 위험뿐 아니라 기회 요소(브랜드 이미지, 시장 진입 등)도 고려
- P(Prepare):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및 공시 항목 준비. 리스크 대응 방안, KPI, 내부 통제 체계 등을 포함

그림 1. LEAP 접근법과 연계된 TNFD 공시 지표 구조



* 출처: TNFD 홈페이지(Metrics: An Introduction to the TNFD's metrics architecture)

ESG Trend

V. TNFD 공시 14개 권고안

- TNFD는 기업의 자연 리스크 관리를 공개하기 위해 4가지 주제(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및 임팩트 관리, 지표 및 목표)에서 14개 권고안을 제시함.
-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5대 직접적 원인(토지 사용 변화, 자원 착취, 기후 변화, 오염, 외래종)을 고려함. TCFD와의 연계성을 높이되, '자연의 복잡성'을 반영함.

표 2. TNFD 권고안

TNFD 권고안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a.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평가하는 경영진의 역할
	c. 원주민, 지역 사회 및 영향권 내 기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정책과 활동, 관련 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
전략	a.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식별한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 설명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 모델, 가치 사슬, 전략 및 재무 계획, 전환 계획 및 분석에 미치는 영향
	c.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
	d. 기업 직접 운영 자산/사업 활동 위치 공개, 우선 순위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위치 공개
위험 관리	a (i).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a (ii). 기업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의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b.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c. 자연 자본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되는 방법
지표 및 목표	a. 전략 및 위험 관리 절차에 따라 자연 자본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b. 자연 자본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c. 자연 자본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이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

VI. 국내외 기업 TNFD 공시 이행 현황

- 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적 TNFD 공시를 약속한 기업은 446개이며, 금융 섹터가 116개로 가장 높은 참여율 보임.
- 국내에는 신한금융, KT&G 등 5개 기업이 TNFD 포럼에 가입했으며,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참여함.

ESG Trend

VII. 산업별 공시 특징 및 국내외 기업 적용 사례

산업별 공시 특징을 확인한 결과, 자연 데이터 확보 및 정량화 역량이 핵심이며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책·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1. 금융업
- 자산 포트폴리오가 생물다양성, 수질, 토지 사용 등 자연요소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분석하거나,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연 리스크 평가 또는 생물다양성 기준 연계 채권 발행 검토
 - HSBC, BNP Paribas, 신한금융, KB금융 등 국내외 대형 금융사가 참여함.
 - 신한금융그룹은 '자연자본 리스크 맵핑'을 통해 섹터별 의존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도함.
2. 제조업 및 소재 산업
- 공급망 내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리스크 진단 또는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수립함.
 - Holcim(건자재), ArcelorMittal(철강), 포스코홀딩스 등은 원재료 채굴, 생산 과정에서 자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 공시를 준비함.
 - LG화학은 TNFD 권고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을 내부 리스크 관리에 반영함.
3. 소비재 및 패션 산업
- Kering은 자연자본 회계를 기반으로 TNFD 공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P&L(환경 손익계산서)을 통해 공급망 내 생태계 훼손 비용을 수치화하고 있음.
 - Unilever, Nestlé 등은 농업 공급망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존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공시를 준비 중임.

표 3. 국내 산업별 생물 다양성 공시 현황

업종	회사 수(개사)	공시 회사 수(개사)	공시 회사 비중(%)
제조업	96	26	27.1
정보통신업	15	3	2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1	1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	-
운수 및 창고업	3	1	3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	-
부동산업	1	-	-
도매 및 소매업	12	-	-
금융 및 보험업	36	8	22.2
건설업	5	3	60.0
총계	178*	42	23.6

출처: 법무법인 세종, 생물다양성 뉴스레터 – 3. TNFD 공시 현황 및 사례: 국내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핵심 준비 사항, 2024.09.26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178개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공시현황을 분석함.

ESG Trend

VIII.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국내 기업 현황

- 국내 기업 중 약 42개사가 TNFD 공시에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순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언급하는 수준이며, 전략의 회복탄력성 분석, 자연자본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평가, 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의 핵심 항목이 부재함.

2. 자본시장 및 정책 변화

- ESG 공시 기준 내 TNFD 반영 가능성 높으며, 환경부 및 금융위 중심의 제도 연계 움직임이 활발함.
- TCFD, CDP, IFRS 공시와 통합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 구성이 필요함.

3. 기업의 기회 요인 및 대응 방안

- 사업장 인근 중요 생물다양성 지역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 등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 정보와 지리 정보 수집이 필요함.
- 공급망 전체의 자연자본 데이터 확보와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TNFD에서 제시한 자연자본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생물다양성 전략을 취해야 함.
- 선제적 대응이 기업의 가치사슬, 투자 유치, 브랜드 평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연을 아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통해, 신제품/시장 진출에 있어 지속가능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함.

4. 도전 과제

- 자연자본 리스크의 재무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자연자본 데이터의 접근성이 낮고 공급망/해외사업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기업 내 이해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낮고 비용 부담과 외부 전문성 의존도가 높음.
- TNFD는 단순 공시 기준이 아닌 ‘자연 회복력’ 중심의 기업 전략 도구이며, 대응 여부가 미래 ESG 평가 및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자사 업종의 자연자본 의존도를 진단하고, 자연자본 리스크와 기회를 정량 분석하여 재무 영향을 산출하는 한편, TNFD 권고안에 따라 공시 지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대응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생태계 지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

ESG Policy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ESG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ESG 공시 및 평가 확대,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주요 ESG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ESG 규제는 더욱 정교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보공개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대응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ESG 정책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

영역	정책 방향	글로벌 트렌드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중립 목표 가속: '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재생에너지 및 신산업 유치 지원) -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RE100 이행을 인센티브·규제로 연계 추진 -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배출권 가격 시장기반 조정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탄소국경조정(CBAM) - 국제 ETS 연계
ESG 공시/평가 투명성·신뢰 제고	- 상장회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 한국형 ESG 평가체계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비중 확대 -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 : 기업이 ESG 평가 체계 구축/공시하도록 권고 및 컨설팅 지원	-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 - EU CSRD - 미국 SEC 규정
지배구조/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 - 기업지배구조 개혁: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활성화 유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스톱워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수탁기관의 스톱워드십 코드 이행결과 공시	- OECD, ESG 요소 반영 확대 - 기관투자자 탄소감축 요구, ESG 투자·의결권 행사 보편화
사회: 노동·공급망 사회 책임	- 노동정책 개혁 : '노란봉투법' 재추진, 정년연장(65세),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자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 - 산업안전 강화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보조금/투자/세제 지원 확대	- 공급망 ESG 규제 - 아동노동, 산재 방지 강화 -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산업/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녹색금융 활성화 :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 중소기업/지역 지원 : 지방 중소기업 ESG 경영에 정책자금 연계, 농촌 태양광/햇빛연금 확대	- 금융권 ESG 투자공시 의무화 - 녹색채권 ↑, 채권 표준 마련 - 자국 에너지·순환경제 투자 ↑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7월호에서는 7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 [울산] 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주요 안전시설 및 정전, 화재 등 산업안전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	(지원규모) 총 50백만원(시비 50백만원), 기업 부담금은 지원금의 30% 이상 (지원 대상) 5개사 내외(각 사 지원금 최대 1천만원)	7월14일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2-219-8641, 8557
중소 [경북] 2025년 김천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ESG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 ESG경영 현황 진단을 통한 ESG과제와 목표 설정 구체화	- ESG 수준진단·평가 (지원내용) 지원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항목별 검증자료 점검 및 실사를 통한 인터뷰 등 진행 후 평가등급 산출 (지원대상) 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기업이거나 제조시설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 기업	7월20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65
중견 중소 2025년 2차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지원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中 경영자금 대출 기업 (지원대상 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방식)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9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
중소 20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가능한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선정된 수요기업에 컨설팅 비용 100%,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 도입 비용 80% 지원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11월말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031

ESG Event

한국ESG연구소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한국 ESG 연구소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2025. 07. 25. (금) 15:30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강당



목적

- 2025년 1차 KRESG 평가결과 리뷰 및 컨트러버시 운영 체계 소개
- 2025년 주주총회 의안분석 사례 및 시사점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행전략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5:30 - 15:35	인사말	백재욱 대표이사
15:35 - 16:00	2025년 1차 KRESG 평가결과 리뷰 및 컨트러버시 운영 체계 소개	황종현 본부장
16:00 - 16:25	2025년 주주총회 의안분석 사례 및 시사점	안효섭 본부장
16:25 - 17:25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행전략	김우찬 고려대 교수
17:25 - 17:30	마무리	

 **KRESG**
한국 ESG 연구소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정책금융기관 공동

2025년 하반기 수출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2025. 7. 17(목) 14:00 ~ 16:10



설명회 개요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2025년 하반기 수출기업 지원 사업 소개 및 Q&A 세션으로 각 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안내

일시 및 장소

2025. 7. 17.(목) 14:00~16:1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진행 순서

14:00~14:10 행사 소개 및 순서 안내
14:10~16:10 각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Q&A 세션
- 기관당 발표 10분, Q&A 10분 진행

참여 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참석 방법

하단 링크 접수 통해 현장참석

문의 사항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 02-6000-5231 (tk.lim@kita.or.kr)

 **KITA**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시 2025. 07. 25. (금) 15:30 ~ 17:30
장소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문의 Tel: 02-769-3023/3040
Email: daegon.park@daishin.com
wooyoung.jeong@daishin.com

일시 2025. 07. 17(목) 14:00 ~ 16:10
장소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문의 Tel: 02-6000-5231
Email: tk.lim@kita.or.kr